

시즌제 이상의 의미... 불문율 깬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즌3까지 나온 드라마
시즌1·2 시청률 27%넘어...첫회 12% 기록

한석규 주연 SBS TV 금토극 '낭만닥터 김사부3'는 시리즈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즌3까지 나온 드라마로 '시즌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깬다. 그간 국내 시리즈물은 시즌2가 시즌1 흥행을 잇지 못하거나, 시즌 1·2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즌3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김사부는 시즌1·2(2016~2017·2020) 모두 시청률 27%(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넘으며 인기몰이했고, 시즌3는 첫회 12.7%를 기록하며 탄탄한 시청층을 유지했다. 괴짜 천재의사 '김사부'(한석규)가 중심을 잡아줬고, 진정성 있는 연기가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을 줬다.

최근 키노라이츠에 따르면, 김사부3는 넷플릭스 '택배기사'에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 랭킹 차트 2위를 차지했다. 업종화 주연 JTBC 주말극 '닥터 차정숙'은 16%(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돌파했는데, OTT 순위는 13위에 그쳤다. 김사부3는 2회 13.8%까지 찍은 뒤 제작자료를 중이지만, 지상파 3사 드라마 부진을 감안하면 돋보이는 성적이다. 채널 다중화 전략을 통해 시청자 선택권을 넓힌 점이 통했다. SBS와 KT 계열

케이블채널 ENA에서 방송하고, 국내외 OTT 웨이브·디즈니+에서도 공개했다. 웨이브에 따르면, 시즌3 방송 후 시즌1·2를 다시 찾아보는 시청자가 늘고 있다. 시즌1·2 시청 시간 순위는 시즌3 오픈 전주 대비 5·6단계씩 상승했고, 5월 첫째주 기준 전 시즌이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인식 PD와 강은경 작가가 시즌1부터 시즌3까지 함께 해 작품 색깔을 잃지 않았다. 기존 시즌제 드라마 취약점을 보완한 셈이다. 제작진 혹은 주연이 바뀌면서 작품 방향과 캐릭터 정체성을 잃고 시청층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았다. 보통 국내 드라마는 처음부터 시리즈물로 기획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김사부 역시 애초 시리즈물로 기획하지 않았지만, 시즌1이 흥행해 3년 여만에 시즌2도 내놓게 됐다. 강 작가는 "다시는 의학물을 못 쓸 것 같다"고 했지만, 시즌3까지 7년 여간 선보이고 있다. 유 PD는 "시즌2가 성사되고 시즌3까지 온 자체가 드라마틱하다"며 "배우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한석규가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쟁

작인 닥터 차정숙이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엄정화)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고 불륜 소재를 녹여 재미를 더했다면, 김사부는 점점 잊혀져 가는 가치를 되새기게 해줬을 뿐 아니라 방향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의사로서 사명감인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를 강조하며 매 시즌 명언을 남겼다. 2019년 유튜브에 올라온 '김사부 명대사로 보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 영상은 조회수 약 1860만회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지금 이 시대 꼭 필요한 드라마라며 '내 인생의 멘토'라고 극찬하는 까닭이다.

물론 시즌1에서 한석규와 함께 한 유연석·서현진이 빠지면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시즌2부터 투입된 안효섭·이성경이 연기를 써 잘하지는 않았지만, 김사부를 만나 조차의 사들이 성장한 것처럼 두 사람 역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3에선 '서우진'(안효섭)과 '차은재'(이성경)가 사회 초년생에서 탈피, '장동화'(이신영)와 '이선웅'(이홍내)가 후배로 들어오면서 선배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오명식'(진경)과 '장기태'(임원희), '박은탁'(김민재) '정인수'(윤나무) 등 시즌1부터 함께 한 이들도 힘을 실어줬다. 실제 사건을 활용해 에피소드별로 전개해 시청자 중간 유입이 쉬웠고, 매회 등장하는 단역 연기까지 완벽해 몰입도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의학물은 장르물에 비해 시즌제로 만들기 쉬운 편이다. 최근 닥터 차정숙이 흥행하며 의학물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시즌제로 자리 잡은 작품은 손에 꼽기 힘들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시즌2(2021)까지 선보였지만, 시즌3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PD가 만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시즌2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유 PD는 "의학 드라마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건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돌담병원이라는 독특한 장소가 있고 김사부라는 희대의 캐릭터가 있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는 질문을 던진다. 이 시리즈의 흔들리지 않는 등뼈 같은 존재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분노의 질주10' 첫 주 전 세계 매출 3500억원 넘겨

북미서 6750만 달러, 북미 외 1억9980만 달러



할리우드 카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이하 '분노의 질주10')가 공개 첫 주 올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며 출발했다.

'분노의 질주10'은 19~21일 북미에서 6750만 달러(박스오피스 모조 기준 1위), 북미 외 나라에서 1억9980만 달러를 벌어들여 총 수익 2억6730만 달러(약 3545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 세계 개봉작 중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3억7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분노의 질주10'은 2001년 시작된 '분노의 질주' 시리즈 10번째 영화다. 이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2025년에 나오는 '분노의 질주11'과 2부작으로 구성됐다. 도미니 패밀리에 아버지를 잃은 단테가 복수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빈 디젤, 제이슨 모모아, 미셸 로드리게스, 성 강, 티이리스 김슨, 루다 크리스, 살리드 테론, 브리 라슨, 제이슨, 존 시나, 리타 모레티, 헬렌 미렌 등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총출동 했다.

다만 '분노의 질주10' 북미 첫 주말 매출액은 2015년 '분노의 질주:더 세븐'(1억4800만 달러), 2017년 '분노의 질주:더 엑스트림'(9800만 달러), '분노의 질주:더 맥시멈'(9700만 달러) 보다는 낮았다.

이밖에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ume 3'(3198만 달러·누적 2억6650만 달러), 3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980만 달러·누적 5억4930만 달러), 4위 '복 클럽:넥스트 챕터'(300만 달러·누적 1310만 달러), 5위 '이블 데드 라이즈'(237만 달러·누적 6400만 달러) 순이었다.

에스파 '마이 월드', 더블 밀리언셀러

블랙핑크 정규 2집 '본 핑크' 이어 K팝 걸그룹 두 번째



대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미니 3집 '마이 월드(MY WORLD)'로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2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

스파가 지난 8일 발매한 '마이 월드'가 2주 만에 201만1388장(5월 21일 기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번 앨범은 에스파 전주문량 자체 최고 숫자(180만 장)를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K팝 걸그룹 발매 첫날 판매량 1위(137만2929장·한타차트 기준), 역대 K팝 걸그룹 초동 1위(169만8784장)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했다.

아울러 K팝 걸그룹의 앨범 판매량이 200만 장을 넘긴 건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작년 9월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 이후 처음이다. '본 핑크'는 현재 25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에스파는 음원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 타이틀 곡 '스파이시(Spicy)'는 멜론 톱100, 지니, 빅스 차트 등에서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또 18일 앨범 '엠카운트다운', 19일 KBS 2TV '뮤직뱅크', 20일 MBC TV '쇼! 음악중심', 21일 SBS TV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4관왕에 올랐다.

한편, 에스파는 칸 국제 영화제의 공식 파트너인 쇼파드(Chopard)의 공식 엠버서더로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에 오른다.

방탄소년단·세븐틴·투바투·엔하이픈·르세라핌의 肖像

다음달 9일부터 8월27일까지 하이브 인사이트 전시

'방탄소년단'(BTS)·'세븐틴'(SVT)·'투모로바이투게더'(TXT·투바투)·'엔하이픈'·'르세라핌' 멤버들의 정춘 초상(肖像)이 한 군데서 내걸린다.

22일 하이브(HYBE)의 전시브랜드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등 하이브 레이블즈 5팀 37인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전시 '더 데이드림 벨리버스(The Daydream Believers)'. K팝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믿고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꿈을 이뤄낸 아티스트들의 초상을 담았다.

하이브·빅히트뮤직·빌리프렘·쏘스뮤직·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하이브가 주관하는 전시의 주제는 '데이드림 벨리버스(Daydream Believers)'. K팝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믿고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꿈을 이뤄낸 아티스트들의 초상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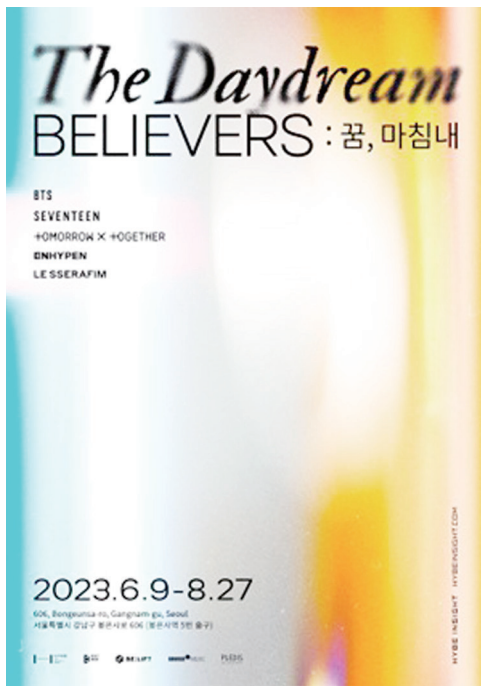
하이브는 "꿈을 믿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된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얼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면서 "단일 주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모두 다르게 해석한 다양하고 풍성한 사진들을 한자리에 관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총 2층으로 구성된 전시장의 전체 공간 콘셉트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다. 앨범 콘셉트 포토, 매거진 화보 촬영 등을 통해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온 사진작가 신선혜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콘셉트를 설계하는 공간부터 헤어, 메이크업, 의상실, 촬영용 세트, 사진을 인화하는 암실까지 실제 사진 촬영이 이뤄지는 현장감을 기반 삼아 아티스트의 초상과 창작물 등을 활용한 체험 전시도 있다. 또한 아티스트가 촬영 시 실제로 착용했던 의상들과 세트, 소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을 활용한 공식 상품들은 전시 장소에 함께 마련된 머치숍에서 살 수 있다. 이번 초상 전시회는 위버스,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 티켓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2021년 5월 하이브 용산 사옥에 개관한 하이브 인사이트는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 활동 지원 시설로의 활용을 위해 용산 사



옥에서 장소를 이전한다. 현재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계획 중이다. 새로운 상설 전시관의 개관 전까지는 다양한 전시를 팝업 형태로 선보인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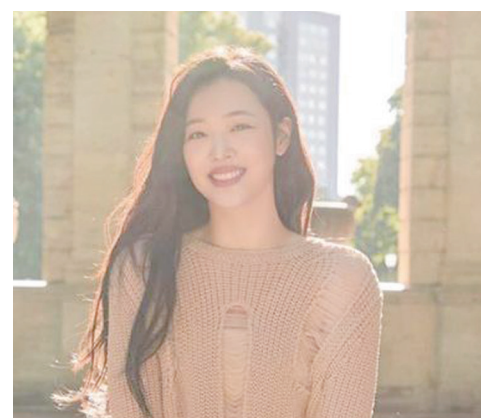
설리 유작 '페르소나2' 공개될 지 관심

2세대 대표 걸그룹 'f(x)' 출신 배우 설리(1994~2019·최진리의) 유작이 공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페르소나: 설리'(페르소나 2)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제작자인 미스틱 스토리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스트리밍하는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페르소나: 설리'는 다섯 감독이 설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단편 영화 5편을 묶은 프로젝트. 설리가 지난 2019년 10월14일 세상을 떠나면서 제작이 중단됐다.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출연한 '페르소나'의 두 번째 시리즈다. '페르소나' 역시 미스틱 스토리가 제작했다.

해당 작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은 넷플릭스가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 '페르소나: 설리'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나왔다. 해외 소셜 미디어에 포스터 등과 함께 공개된 40초분량의 '페르소나: 설리' 예고편엔 "인기라는 게 갑자기 확 생긴 거잖아요. 이해했지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등 설리의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설리는 2005년 드라마 '서동요'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2009년 f(x) 멤버들과 첫 앨범을 내놓은 뒤 가수로 활동했다. 2015년 팀을 탈퇴한 후 배우로 전향했다. 부모뒤편 악플에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에 20~3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설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켠에서는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2020년 방송됐던 MBC TV '다큐플러스-설리가 왜 불행하셨나요?'에서 설리의 삶이 재조명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소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